

비소세포폐암에서 Vinorelbine(Navelbine®)을 포함한
복합화학요법의 효능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내과
김기원, 박용현, 배해경, 이인석, 서지원, 박석영

목적: 비소세포폐암에서 기존의 복합화학요법보다도 우수하다는 vinca alkaloids계 반합성 유도체인 Vinorelbine(Navelbine®)의 효능 및 그 부작용을 평가. 대상: 비소세포폐암으로 진단되어 근치적절제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평균 59.3세의 23예(남 19, 여4)를 대상으로 연구. 방법: 유도화학요법으로 Vinorelbine 15 mg/m² x day 1-4 + Cisplatin 20 mg/m² x day 1-4 을 7예에게, Vinorelbine 25 mg/m² x day 1,8 + Cisplatin 60 mg/m² x day 1 을 2예에게, 구제화학요법으로 Vinorelbine 25 mg/m² x day 1,8 + Carboplatin 6 mg/mL · min x day 1 을 14예에게 투여하고 반응도와 약물독성을 WHO 기준에 맞추어 평가. 결과: 총 72 주기의 치료를 통해서 반응을 평가할 수 있는 18예 중 부분관해는 7예(38.9%), 불변은 7예(38.9%), 병의 악화는 3예(16.7%)였다. 전체 환자에서 주요 부작용으로 grade 3 골수억제 7예(30.4%), grade 4 골수억제 3예(13.0%), grade 3 이상의 변비 5예(21.8%), 경미한 혈관염이 6예에서 관찰되었다.

Response	Induction chemotherapy	Salvage chemotherapy	Total
Partial response	4(57.1%)	3(27.3%)	7(38.9%)
Stable	2(28.6%)	5(45.5%)	7(38.9%)
Mixed response	1(14.3%)		1(5.6%)
Progression		3(27.3%)	3(16.7%)
Total	7	11	18

결론: 비소세포폐암의 치료에서 새로운 약제의 개발이 절실히 요망되는 현 상황에서 Vinorelbine을 포함한 복합화학요법은 반응도가 우수하였고 부작용이 심하지 않아서 이 약제의 효능에 대한 향후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진행성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에서의 Ifosfamide, Cisplatin, Etoposide(ICE) 복합화학요법의 효과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김병익*, 최재혁, 이상엽, 김성목, 이경희, 현명수

연구 배경: 비소세포 폐암은 전체 폐암의 75-85%를 차지하며 근치적 절제술이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나 진단 당시 대부분 절제 불가능한 상태로 10-35% 정도만이 수술이 가능하므로 많은 환자에서 방사선 치료와 항암 화학요법이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방사선 단독치료의 경우 원격전이로 인한 높은 치료 실패율과 생존율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최근에는 항암 화학요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여러 종류의 화학요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 cisplatin을 중심으로 mitomycin-C, vinblastine, etoposide 등의 몇몇 제제를 이용한 복합화학요법으로 관해율과 생존기간 연장을 위한 시도가 행해지고 있으나 아직도 괄목할 만한 치료성적은 보고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자들은 이들 화학요법 중 진행성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들에게 ICE 복합화학요법을 적용하여 치료 효과와 부작용 등을 조사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5년 3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조직학적으로 비소세포성 폐암으로 진단받고 진행성 혹은 전이성 병변 등으로 인해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 중 과거 항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ICE 복합화학요법(Ifosfamide 1.5gm/m² full drop with Mesna day 1-5, Cisplatin 80mg/m²/day infusion with hydration day 2, Etoposide 100mg/m²/day infusion for 2 hours day 1-3) 을 3-4 주 간격으로 시행하였다.

결과:

- 1) 평가 가능한 전체 33명 환자의 연령 분포는 38-70세로 평균 56세였고, 남성이 29명, 여성이 4명이었으며, 조직학적으로는 편평상피세포암이 18명(54.5%), 선암이 12명(36.4%), 대세포암 1명(3.0%), 미분류암 2명(6.0%)이었다. 또 국소적 진행이 있었던 경우(stage IIIa 3명, IIIb 9명)는 12명(36.4%), 전이성 병변이 있었던 경우(stage IV)는 21명(63.6%)이었다.
- 2) 전체 33명의 환자 중 완전 관해는 없었으며, 부분 관해는 10명(30.3%), 불변은 14명(42.4%), 진행은 9명(27.3%)이었다. 관해 지속기간의 중앙값은 36주(12-107주)였고 전체 환자의 중앙 생존기간은 35주(5-107주)였다.
- 3) 반응군치(CR, PR, 10명) 전체 생존율은 53.80±7.98 주이고 무반응군의 경우 27.26±4.31 주로 반응군이 무반응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p=0.012) 생존율의 향상을 보였고 전체 33명의 전체 생존율은 35.30±4.36주로 관찰되었다.
- 4) 전체 33명의 환자 중 비혈액학적 부작용으로는 오심 24명(73%), 탈모증 22명(67%), 구내염 11명(33%), 설사 5명(15%), 탈초신경염 2명(6%), 간독성 2명(6%)으로 관찰되었고 Grade 3-4 이상의 중요한 혈액학적 부작용으로는 호중구 감소증 7명(21%), 혈소판 감소증 5명(15%), 빈혈 3명(9%)으로 관찰되었으며 치료 관련 사망은 없었고 부작용들은 모두 보편적인 치료로 회복되었다.

결론: 이상의 결과로 Ifosfamide, Cisplatin, Etoposide(ICE) 복합화학요법은 진행성 비소세포암의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생각된다.